경제정보

世界經濟 '85년도에도 安定成長 持続 展望

누구나 85년도의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는「산업연구원」의 자료에서 85년을 전망해 보기로 합니다.

금년 들어 美国을 중심으로 활발한 成長勢를 보였던 世界経済는 내년에 成長勢가 다소 鈍化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物価가 安定된 가운데 30%台의 견실한 成長局面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금년중에 매우 강한 成長勢를 보였던 美国, 日本, 아시아新興工業国들은 成長率이 다소 낮아지는 반면, 유럽主要国들은 금년보다 약간 높은 成長勢를 유지하고, 그동안 본격적인 回復局面에 진입하지 못하였던 대부분의 開途国들도 금년보다 활발한 成長勢를 보여 世界経済의 成長底辺은 더욱 拡大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에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世界貿易伸張率은 내년에 다소 낮아지겠지만, 82년과 83년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6% 台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国際金融面에서는, 美国金利의 下落으로 主要国際金利들이 下落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과대평가되어 온 달러貨도 내년중에는 下落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油価를 비롯한 国際原資材価格도 安定勢를 지속하여 世界経済의 成長与件은 상당히 改善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国, 成長勢 鈍化되나 4% 내외의 安定成長局面 維持

世界経済가 내년에도 安定成長局面을 지속할 것이라는 展望을 뒷받침하는 것은 금년에 世界経済成長을 주도하였던 美国과 日本이 내년에도 4% 台의 높은 成長勢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世界経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美国은 금년 上半期中에 民間消費支出, 企業의 設備및 在庫投資, 住宅建設 등이 好調를 보여, 1/4分期와 2/4分期 成長率이 각각 10.1%, 7.1% (前期比 年率)에 달하였다. 그러나 3/4分期 들어 小売販売와 住宅建設 등의 不振으로 成長率이 1.9%로 크게 떨어지고, 4/4分期에도 成長勢가 크게 回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 美国経済의 成長率이 2% 台로 떨어져 86年에는 不況局面에 접어들 것이라는 일부의 비관적인 展望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物価가 安定勢를 지속하는 반면 景気는 크게 진정되고 있고, 특히 달러貨의 強勢로 인한 輸入急増으로 美製造業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聯準(FRB)이 내년에도 금년 下半期 이후의 緊縮援和基調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美国金利가 내년까지 下落勢를 지속하여 民間消費支出과 設備投資 등이 계속 증가하고, 달러貨下落으로 貿易収支赤字増加幅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美国経済는 내년중에 금년의 7%보다는 낮으나 대부분의 先進国보다는 높은 3.5~4.5%의 安定成長局面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国의 物価는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安定되어 消費者物価上昇率이 4~5%, 都売物価上昇率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失業率은 年平均으로는 금년의 7.4%에서 7.3%로 다소 낮아지나, 금년 말에 비해서는 小幅 上昇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日本 역시 4~5%의 높은 成長勢 持続

日本 역시 내년에 主要先進国들중 가장 높은 4~5%의 成長率을 기록하여 世界経済成長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経済는 금년 들어 対美輸出이 好調를 보이고, 尖端産業을 중심으로 民間企業의 設備投資가 크게 증가함에 힘입어 5.5%이상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美国経済의 成長鈍化에 의한 輸出伸張率 低下와 財政金融政策上의 緊縮基調維持로 成長率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内需部門의 成長基盤은 더욱 拡充되어 내년에도 4~5%의 成長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①금년에 부진하였던 民間消費支出이 個人所得의 増加에 힘입어 크게 増加할 것으로 보이며, ②금년에 활기를 띠었던 設備投資 등의 増加趨勢가 지속되고, ③輸出伸張率이 鈍化되더라도 輸入伸張率보다는 높은 8%에 이를 것으로 보여 貿易収支黒字幅도 금년의 440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로 拡大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余他国에 비해 더욱 安定되어 있는 日本의 物価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安定基調를 그대로 유지하여, 消費者物価는 2% 정도 上昇하고 都売物価는 금년 수준에서 上昇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雇備事情은 크게 改善되지 못하여 失業率이 80~82年 수준보다 훨씬 높은 2.8%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금년보다 다소 높은 2~2.7% 成長 展望

유럽主要国들은 내년에 成長率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美·日보다 낮은 2~2.7%의 완만한 成長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유럽主要国経済는 금년들어 対美輸出好調 및 設備投資増加에 힘입어 回復勢를 지속하였으나, 民間消費支出 등의 内需増加가 미미하였고 政府의 緊縮基調도 계속되어 본격적인 回復局面에는 접어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西独과 英国이 2.5% 수준, 강력한 耐之政策이 계속되고 프랑스는 1% 内外의 미미한 成長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부진하였던 民間消費支出이 다소 回復되고, 企業의 設備投資도 계속 増加할 것으로 보여, 금년보다 높은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美国経済의 成長鈍化에 의해 対美輸出伸張率이 떨어지고, 특히 유럽経済의 構造的 問題点인 産業構造調整不振, 勞動市場의 不安定, 尖端産業部門의 競争力劣位 등이 成長을 制約할 것으로 보여 成長率은 美·日보다 낮은 2~2.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国別로는 프랑스가 대대적인 租税削減에 힘입어 금년보다 크게 높은 2% 내외, 英国도 금년보다 다소 높은 2.7%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西独의 成長率은 금년보다 다소 낮아진 2~2.3% 수준일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유럽의 物価는 대체로 安定勢를 유지하여, 消費物価上昇率이 西独 3% 미만, 프랑스 6%台, 英国 5.8%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성적인 高失業趨勢는 내년에도 改善되지 못하여 10% 내외의 높은 失業率이 계속될 것으로 展望된다.

開途國, 대체로 금년보다 높은 成長 実現

금년중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回復局面에 들어서지 못하였던 開途國들은 先進國과 時差를 두고 景気回復勢를 뒤밟아 갈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높은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開途國전체의 平均成長率은 금년의 3% 미만에서 85年에는 3.5% 높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國別로는 여전히 상당한 成長率隔差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対美輸出好調에 힘입어 8% 이상의 高度成長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新興工業國들은 85年에 美國経済의 成長鈍化로 成長率이 다소 떨어질 것이다. 여전히 物価가 安定된 가운데 여타국들보다 높은 7% 내외의 높은 成長趨勢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中南美國家들은 금년에 실시된 債務再調整으로 外債償還負担이 다소 緩和되어 國内経済政策에 여유를 갖게 되었고, 先進國経済成長의 波及效果도 내년부터 본격화되어, 成長率이 금년의 1%보다 높은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中東産油國들과 아프리카開途國들도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2～3%의 実質成長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開途國의 物価는 國別로 큰 差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83년 이후 物価가 크게 安定되고 있는 아시아新興工業國들은 消費者物価上昇率이 금년의 2～8%와 비슷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中南美國家들과 일부 아프리카開途國, 그리고 필리핀 등은 構造的인 物価上昇의 悪循環이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世界貿易伸張率, 금년보다 낮은 6%수준 예상

이처럼 世界経済가 내년에 成長勢는 다소 鈍化되더라도 安定成長局面을 지속함에 따라 世界貿易伸張率도 금년의 10% 보다는 낮으나 80년대초의 2% 미만보다는 훨씬 높은 6%台에이를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世界最大輸入國인 美國이 주로 先発開途國들을 대상으로 輸入規制措置를 強化시키고 있어 國際貿易環境은 더욱 悪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國別貿易展望을 살펴보면, 금년에 30%라는 유례없이 伸張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美國의 輸入은 내년에 成長鈍化 및 달러貨 不落, 그리고 輸入規制措置強化 등으로 금년보다 伸張率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先進國들중 가장 높은 7～10%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반면 輸出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5～6%의 伸張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輸入伸張率이 輸出伸張率을 상회하여 貿易収支赤子는 금년보다 100～200억 달러 많은 1,400～1,500억 달러에 이를 展望이다.

日本은 내년에 輸入伸張率이 금년의 11%에서 7%로, 輸出伸張率은 금년의 17%에서 8%로 각각 鈍化될 展望이다. 그런데 輸入의 鈍化幅이 작은 理由는 내년에도 日本経済가 여타국에 비해 높은 成長率을 유지하고, 엔貨価値가 上昇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貿易収支黒字幅은 금년의 44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60억 달러로 더욱 拡大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主要國들 역시 貿易伸張率이 小幅 下落하여, 輸入伸張率은 금년 6～10%에서 4～6.5%, 輸出伸張率은 6～9%에서 4～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 등 主要國金利, 완만한 下落勢 持続

한편,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世界経済成長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하였던 美國金利는 내년에 완만하나마 下落勢를 지속하여 成長에 寄与할 것으로 展望된다.

國際金利를 주도하고 있는 美國金利는 지난 9월 이후 成長鈍化에 따른 民間資金需要増加幅鈍化와 聯準의 通貨供給増大에 힘입어 下落勢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聯準의 緊縮緩和가 될속될 것으로 보여 프라임레이트가 현재의 11.25%에서 10%線까지 下落할 것으로 展望된다.

막대한 財政赤字가 金利上昇圧力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金利水準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聯準의 通貨政策이 내년에 다소 緩和될 것으로 展望하는 理由는 ① 금년 下半期 이후의 成成鈍化가 예상보다 커 景気浮揚을 위한 緊縮緩和가 필요하고 ② 輸入急增으로 製造業部門의 成長이 制約되고 経常収支赤字도 계속 拡大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貨 下落으로 國際収支改善과景気浮揚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③ 通貨量(M_1)增加率이 目標区間(年率 4 ~ 8 %)의 하한을 유지하고 있어 通貨供給을 늘릴 이유가 있고, ④ 油価 등 國際原資材価格과 國内物他가 安定되어 인플레이션再燃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美國金利의 下落勢를 반영하여 유로달러金利 및 유럽主要國金利도 下落勢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日本金利는 日本의 金融市場開放으로 國際金利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國債償環을 위한 新規債発行이 예상되어 완만한 上昇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달러貨는 완만하게 下落할 듯

그동안 과대평가되어 온 달러貨는 내년에 완만한 下落勢를 지속할 것으로 展望된다. 금년들어서도 上昇勢를 지속하였던 달러貨는 10월중순 이후 美國金利의 下落 및 成長鈍化로 인하여 下落勢로 反転되었다가 최근 다시 上昇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① 美國의 貿易収支赤字가 계속 拡大되고, ② 그동안 달러貨強勢의 主要因이었던 美國金利가 더욱 下落할 것으로 보이며, ③ 成長鈍化로 美國経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下落趨勢를 持続, 美效換率基準으로 6 ~10 % 下落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따라 일본엔貨 유럽主要國通貨는 내년에 원만하게 회복될 展望인데, 특히 일본엔貨는 엔貨의 國際化 및 日本経済의 높은 成長에 힘입어, 그리고 英國파운드貨는 英國의 높은 金利水準을 반영하여 큰 幅으로 回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國際金融市場을 통한 借入与件은 내년에 더욱 改善되어 借入規模가 금년의 1,800억달러에서 2,1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며, 借入條件도 다소 緩和될 것으로 보인다.

石油 등 國際原資材価格은 安定勢 持続

石油 등 國際原資材価格은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되어 世界経済成長 및 각국의 物価安定에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油価는 금년 들어서도 世界石油市場의 供給過剰現象이 계속되어 弱勢를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7월과 10월에는 現物油価가 公示価를 3달러 이상 하회하여 OPEC이 生産限度를 하루 1,750만 배럴에서 1,600만 배럴로 감축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내년에도 소련 등 非OPEC 産油國들의 生産이 계속 늘어나고, 그동안의 石油収入減少로 財政事精이 악화된 OPEC도 生産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 반면, 石油需要增加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油価는 弱勢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國際 1 次産品価格은 금년 2/4 分期 이후의 下落勢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 次生産品価格이 安定될 것으로 展望하는 이유는 금년 하반기중의 価格下落으로 내년에는 生産과 供給이 감소하고, 달러貨 下落으로 輸入需要가 增加할 것이라는 점이 価格上昇圧力으로 작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農産物豊作으로 農産物価格이 弱勢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 金利가 下落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므로 1 次産品에 대한 在庫投資가 계속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輸出与件은 금년보다 다소 悪化될 듯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년에 世界経済가 安定成長을 持続하고, 国際金利가 下落하며,

석유 등 国際原資材価格이 安定勢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対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의 安定成長에 큰 돋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最大輸出市場인 美国의 成長勢가 크게 鈍化되고, 主要先進国들의 輸入伸張率이 금년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輸出伸張率도 약간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先進国들의 雇傭事情이 크게 改善되지 못함에 따라 保護貿易主義는 계속 강화될 것이며, 특히 美国이 先発開途国에 대한 輸入規制措置를 強化시키고 있어 우리의 輸出与件은 금년보다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내년에 輸出与件이 다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82년이나 83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며, 国際金融 및 油価展望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러한 対外経済経与件変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輸出増大 및 国際収支改善을 위해 노력한다면, 余他国보다 높은 成長趨勢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1〉

主要国의 実質 GNP成長率 展望

単位：%

	1982	1983	1984			1985		
			DRI	WEFA[1]	KIET	DRI	WEFA[1]	KIET
OECD[1]	−0.2	2.4	..	4.8	..	..	3.1	..
美国	−1.9	3.4	6.8	7.5	7.5	2.5	3.8	4.0
日本	3.3	3.1	5.9	5.4	5.5	3.7	3.8	4.0
西獨	−1.1	1.3	2.8	2.3	2.5	2.4	2.0	2.3
프랑스[1]	2.0	0.7	1.0	1.3	1.0	1.5	2.0	1.8
英国[1]	1.4	2.2	1.9	2.3	2.5	2.7	1.5	2.7
開途国	0.6	−0.4	..	2.7	..	..	3.5	..

資料：DRI, 各国 最近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ck*, Oct. 1984.

註：1) 実質 GDP成長率.

〈表－2〉

主要通貨의 換率展望

単位：달러當 各通貨

	通貨	1985			
		Ⅰ	Ⅱ	Ⅲ	Ⅳ
WEFA	¥	233.9	225.8	217.5	209.6
	DM	2.9827	2.9424	2.9084	2.8859
	F.Fr	9.2559	9.1835	9.0898	9.0120
	S.Fr	2.4610	2.3512	2.2993	2.2605
	Lit	1,937	1,946	1,959	1,981
	C.S	1.3154	1.3169	1.3167	1.3155
	£[1]	1 2648	1.3139	1.3638	1.4119

資料：WEFA, *Wharton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Nov. 1984.

註：1) 파운드當 달러.